

우즈, 나이키와 결별 ... "27년간 행운 누렸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의 상징과도 같았던 모자 로고가 사라진다. 우즈와 후원사 나이키와가 27년 만에 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것이다.

9일 '채널A'에 따르면 3년 연속 아마추어 무대를 제패한 후 1996년 해성 같이 프로로 데뷔하며 한 타이거 우즈는 후원사 나이키와 만나 골프 산업의 차원을 바꿨다. 나이키의 우즈 후원액 4,000만 달러는 당시 스포츠계 역대 최고액수였다. 후원액은 2001년 1억 달러(5년간), 2006년에는 1억6,000만 달러(8년간), 2013년에는 2억 달러(10년간)가 됐다.



▲ 타이거 우즈, 사진=wdrb.com

은 매출이 2배로 늘어났다. 효과를 확인한 나이키는 모자와 의류, 골프 공과 장비 등 움직이는 광고판이었던 우즈와의 계약 규모를 늘려오며 27년간 동반자 관계를 지속했다.

우즈의 이름을 딴 'TW' 라는 로고와 함께 골프 의류 사업을 시작했고, 2000년대 초반에는 골프클럽 등 장비 사업에도 진출했다. 우즈는 나이키가 장비사업에서 철수한 2016년까지 나이키의 골프클럽을 사용했다. 일각에서는 우즈가 나이키 클럽을 사용하면서도 우즈했다고 놀라워하기도 했다.

나이키는 우즈가 스캔들로 흔들릴 때도 결을 지켰다. 2009년 우즈의 혼외정사 보도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우즈와의 광고 계약을 종료했지만 나이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상과 기량 저하, 나이키의 부진 등이 겹치며 양측의 계약 관계는 끝을 맺었다.

나이키는 중국 시장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3년간 20억 달러 비용 삭감을 발표해 골프 사업 철수도 나온다.

우즈는 8일 자신의 자신의 X(옛 트위터)에 "27년 전,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브랜드 중 하나와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었던 건 행운이었다"며 "나이키와 함께한 시간이 정말 많은 놀라운 순간과 추억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전했다.

양측간의 결별로 인해 누가 우즈의 다음 번 파트너가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2021년 목숨까지 위협했던 자동차 사고를 당한 후 복귀한 우즈는 종종 'F' 로고가 박힌 신발을 신고 경기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우즈는 "심각한 다리 부상을 입은 이후 좀 더 안정될 수 있는 뭔가 다른 것이 필요했다"고 말한 바 있다.

첫 계약 당시 존재 위기였던 나이키의 골프의류 부문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한국 축구 '아시안컵' 우승 확률은 '14.3%'

64년 만에 아시안컵 정상에 도전하는 대한민국의 우승 확률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9일 '스포츠투'에 따르면 축구 통계 매체 '옵타'는 이날 슈퍼컴퓨터를 활용해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우승 확률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우승 확률이 가장 높은 팀은 일본이었다. 일본의 우승 확률은 24.6%로 팀들 중에서 유일하게 20% 이상의 수치를 보였다.

한국이 그 다음이었다. 이 매체는 한국의 우승 가능성으로 14.3%를 예상했다. 일본보다 10.3% 낮았다. 이란이 11.2%로 뒤를 이었고 호주와 사우디아라비아도 각각 10.7%, 10.6%를 기록했다. 개최국이자 디펜딩 챔피언 카타르는 9.8%로 6위였다.

또한 한국은 E조에서 1위를 차지할 확률이 67.3%에 달했다. 한국은 바레인, 요르단, 말레이시아와 맞붙을 예정이다. 16강 진출 가능성도 95.1%였다. 그

리고 한국은 결승 진출 확률이 24.9%였다.

64년 만의 아시안컵 정상을 향한 위트겐 클린스만호가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달 28일 아시안컵에 나설 최종 명단 26인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꾸준히 부름을 받았던 선수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깜짝 발탁으로는 김지수, 양현준 정도였고, 최근 유럽 빅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김민재 등이 모두 출전 준비를 마쳤다.

한국은 초대 대회인 1956 대회와 2회 1960 대회에



▲ 2023 카타르 아시안컵 홍보 이미지, 사진=SNS

서 우승한 뒤 아직까지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 이후 준우승만 4번이다. 특히 2000년 이후 6번의 대회를 거치는 동안 준우승 1회, 3위 4회의 성적을 거뒀다. 가장 최근에 열렸던 2019 대회에서는 8강에서 카타르에 패해 일찌감치 탈락했다. 64년이라는 기나긴 기다림 끝에 이번에는 반드시 우승컵을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한국은 오는 15일 바레인을 상대로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르고, 20일에는 요르단을 상대한다. 그리고 25일 말레이시아와 최종전을 갖는다.

SC FOOT AND ANKLE CENTER

YouTube "건강한발TV"를 검색, 구독/좋아요/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정보를 받아 보세요!

강현국 김상엽 발&발목 전문센터

Southern California Foot and Ankle Center scfootnankle.com

당뇨 신발
보험 적용 & 문의 환영

Medi-Cal
0세부터 20세까지

- 전문 발&발목 질환 진료과목 -

- 발 통증 (Plantar Fasciitis)
- 평발 (Flat Feet)
- 무지외반증 (Bunion)
- 작은발가락 기형 (Hammer toe)
- 당뇨병성 질환 (Diabetic Ulcer, Neuropathy)
- 내성 발톱질환 (Ingrown Toenail, Fungal Toenail)
- 신경종 (Neuroma)

- 발통풍 (Gout Attack)
- 발·발목 골절 (Foot and Ankle Fracture)
- 사마귀 (Plantar Warts)
- 무좀 (Athlete's Foot)
- 아킬레스 건염 (Achilles Tendonitis)
- 발 성형수술 (Foot Plastic Surgery)
- 소아 안짱다리 교정 (Intoe gait)

★ 레이저 곰팡이 발톱 치료 Special ★

강현국
Hyun Kang DP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S
Medical Education: School of Podiatric Medicine at Barry University
Residency: Kendall Regional Medical Center, Trauma Surgery Center
Hospital Affiliation: La Palma Intercommunity Hospital, West Anaheim Medical Center

김상엽
Sang Kim DP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S
Medical Education: School of Arizona Podiatric Medicine at Midwestern University
Residency: Bridgeport Hospital Yale New Haven Health
Hospital Affiliation: La Palma Intercommunity Hospital, West Anaheim Medical Center

각종 보험 PPO, HMO, Medicare, 저렴한 Cash Plan

LA 월~금 9am-1pm/ 2pm-6pm 토 9am-2pm
OC 월~금 9am-12pm/ 1pm-5pm 토 9am-2pm
Torrance 월~금 9am-12pm/ 1pm-5pm

LA Office
213) 352-1090
520 S. Virgil Ave. #105
Los Angeles CA 90020

OC Office
714) 735-8588
5451 La Palma Ave. #26
La Palma, CA 90623

Torrance
424) 305-4417
3400 Lomita Blvd. #305
Torrance, CA 90505

FAX 562)249-8443
ID : scfoot
scfootnankle@gmail.com